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어촌체험마을 운영관계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연안의 어촌체험마을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오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을 운영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워크숍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여명과 어촌체험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어촌계장(사무장) 80여명 등 총 130여명이 모여 체험마을 운영노하우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체험마을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장(서장우)의 "어촌관광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설명과 담당계장(전성래 사무관)이 진행하는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동명대학교 나윤중 경영대학장의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리더의 역할"과 씨엔닷컴 김중우 대표의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 더불어, 2007, 2008년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대회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한 "전남 무안 송계마을"과 "경기도 안산 선감마을"의 성공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은 2013년까지 조성할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중 2007년말 87개소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험마을 운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험마을 운영자의 역량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 어촌으로 찾아가다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울진 거일1리에서 -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본 행사

는 경북지역의 구미, 의성, 안동, 봉화 등지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32가족, 86명을 초청, 오는 6월 14일(토)에서 15일(일)까지 1박2일 동안 울진 거일어촌체험마을에서 어촌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

산업 체험으로 승선체험, 후포항 흥게 경매 견학, 넝치양식장 및 민물고기연구센터 견학 등을 하였으며 거일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 갯바위낚시, 울진명물인 게를 활용한 게줄 놀이, 마을 앞 백사장에서 운동회 등을 즐겼다.

국내 최초의 내수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착수

협회는 지난 17일 강원도화동해출장소와 "내수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계약하였다. 본 용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내수면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강원도 북부내수면 4개시·군(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소득기반시설, 어업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편익·복지·문화시설 등이 갖추어 지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과업기간은 금년 12월 14일까지 총 180일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